



EAI 여론브리핑 제24호 (2008. 3. 20)

EAI · SBS · 중앙일보 · 한국리서치(2008)
2008 총선패널조사 D-20 1차 조사 분석



“요동치는 민심, 표심의 변화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

새 정부에 대한 실망과 한나라당 총선지지율 우위 사이의 온도차

- 주제1. 민심변화의 양대 축 : 실망과 견제심리.....권혁용 위원
- 주제2. 민심변화 총선 표심으로 이어질 지는 예단 어려워.....정한을 위원
- 주제3. 총선결과 예측을 위한 3대 변수.....권혁용 · 정한을

- 기 획 : EAI · SBS · 중앙일보 · 한국리서치
- 후 원 : SBS · 중앙일보
- 실 사 : 한국리서치
- 조사대상 : 전국 만 19세 이상의 성인남녀(2006년 12월 31일 주민등록인구현황)
- 표 본 : [대선패널]
 - 1차 패널 3,503명(2007. 4.25-4.28)
 - 2차 패널 2,911명, 유지율 83.1%(2007. 8.10-8. 13)
 - 3차 패널 2,524명, 유지율 72.1%(2007.10.17-10.20)
 - 4차 패널 2,382명, 유지율 68.0%(2007.11.25-11.27)
 - 5차 패널 2,208명, 유지율 63.0%(2007.12.11-12.12)
 - 6차 패널 2,111명, 유지율 60.3%(2007.12.20-12.21)
- [총선패널]
 - 1차 패널 1,370명(2008. 3.16-18)
- 표본추출 : 지역 · 성 · 연령별 쿼터 할당 후 6차까지 대선패널조사에 참여했던 2111명 중 무작위로 추출하여 1300명 규모의 총선패널조사 참여 패널을 모집함.
- 조사방법 : 전화면접조사
- 가 중 치 : 지역(권) · 성별 · 세대 · 학력별 가중치 부여

[총선패널연구팀]

- 위원장 이내영(위원장, EAI 여론분석센터 소장)
- 위 원 강원택(EAI시민정치패널위원장, 숭실대), 권혁용(고려대), 김민전(경희대), 김성태(고려대), 박찬욱(서울대), 서현진(성신여대), 유성진(이화여대BK21), 이현우(EAI패널조사 질문지팀장, 서강대), 임성학(서울시립대), 진영재(연세대), 신창운(중앙일보 전문위원), 현경보(SBS 차장), 김춘석(한국리서치 부장), 박종선(한국리서치 차장), 정한을(EAI여론분석센터 부소장)
- 간 사 곽소희(EAI 연구원)



민심변화의 양대 축 : 실망과 견제심리

권혁용 (고려대)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서 과반수에 육박하는 역대 최고 득표로 승리한 후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총선에서 한나라당의 압승을 예상했다. 한나라당 압승론은 총선이 대통령 취임 직후 치루어지게 됨에 따라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를 지지했던 민심이 총선에서도 한나라당 지지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기초한다. 집권초기 새 대통령을 초당파적으로 밀어주는 밀월효과까지 감안하면 과반 의석 확보는 물론 2/3 개헌의석 확보까지 가능하다는 전망이 설득력을 가졌다.

변화의 조짐 : 대선 시 이명박 지지자 중 총선 시 한나라당 지지 이탈 36.3%

그러나 총선을 20여일 현시점에서 보면 이러한 전망에 변화의 조짐을 확인할 수 있다. 총선 패널조사 결과 이명박 지지층의 이탈이 적지 않다.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를 지지했던 666명 중 63.4%인 424명만 이번 총선에서 한나라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밝히고 나머지 36.3%는 다른 정당 후보를 지지하거나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또한 전체 유권자의 과반수에 육박하는 한나라당 지지층(47.6%)에서도 5명에 한 명은 이번 총선에서 한나라당 후보에 대한 지지를 유보하고 있다. 지역구 선거에서 한나라당을 지지하겠다는 응답자는 39.8%에 그쳐 한나라당 지지층을 온전히 흡수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 과반의석 확보론에 빨간 불이 켜진 셈이다[그림1].

왜 이탈 현상이 나타나는가? (1) 실망 (2) 견제심리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를 지지했던 유권자들 중 이번 총선에서 다른 정당 후보를 찍겠다고 답한 응답자들에게 이유를 주관식으로 물어본 결과 40.3%가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해서', 23.8%'이명박 대통령 및 정부에 실망해서'라고 답했다. '한나라당에 실망해서'는 응답이 13.4%였다. 그 외 '지금 지지하는 정당이 잘해서'가 6%, '지금 지지하는 후보가 마음에 들어서'라는 응답은 8%에 그쳤다. 결국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실망이 한축, 견제와 균형의 심리가 다른 한 축을 이루면서 이탈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그림2]

실망

대선직후 패널조사에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기대를 물어본 결과 86%가 잘할 것이라고 큰 기대감을 나타냈지만 이번 조사에서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60.2%에 그쳤다. 이명박 정부의 첫 인사에 55%가 비판적일 뿐 아니라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한반도 대운하사업과, 영어몰입교육에 대한 반대가 각각 57.8%, 49.7%로 찬성을 상회하고 있는 것도 부담이다. 국정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응답자의 55.5%가 총선에서 한나라당 후보를 투표할 것이라고 답한 반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응답자의 12.1%만이 한나라당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밝혀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실망은 한나라당의 총선 지지율 하락요인이 된다.[그림3,4]

이러한 극명한 분화는 이명박 정부 초기 민생정책제안들에 대한 실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 하에서 사교육비, 경제적 양극화 해소, 노사갈등 문제에 대해 전망을 물어본 결과 민생과 직결된 사교육비에 대해서는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이 지난 대선직후의 20.3%에서 8.9%로 급격하게 축소했고 경제양극화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도 46.4%에서 37.8%로 줄어들었다. 남북관계와 노사관계에 대해서는 별 차이가 없었다. [그림5]

각 정당들의 공천과정에 대한 유권자의 평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통합민주당의



공천과정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이 49.3%인 반면에, 한나라당의 공천과정에 대한 만족도는 40.3%에 불과했다. 민주당이 김홍업, 박지원 등 DJ측근을 비롯 주요 당직자들을 공천에서 배제함으로써 원칙을 보여준 공천으로 프레임화된 반면 한나라당은 친박 대 MB계 사이의 갈등이라는 프레임이 작동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특히 박근혜 전대표의 지지기반인 대구 경북 지역에서 만족한다는 응답이 37.3%에 그친 반면 불만족한다는 응답은 46.9%로서 가장 높게 나왔다는 점도 영남에서의 한나라당 의석확보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그림6]

견제균형 심리의 발동

견제와 균형의 심리는 대통령제를 채택하는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여소야대의 분점정부를 만들어내는 메커니즘이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국정안정을 위해 여당을 지지하자는 안정론 대신 대통령과 여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 야당을 지지해야 한다는 견제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전체적으로 볼 때 ‘국정안정’론이 전체 응답자의 42.2%, ‘견제와 균형’론이 40.0%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12월 조사에서 안정론이 45.4%, 견제론이 34.6%로 10%p가량 차이 났던 것과 대조되는 결과이다.[그림7]

12월 조사에 비해 ‘견제와 균형’론은 진원지는 지역적으로 수도권과 충청지역, 호남지역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 연령이 낮거나, 소득과 교육수준이 높거나, 또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집단에서는 견제론이 안정론을 크게 앞서가고 있다. 이들 지역과 계층이 과거 구 여권의 지역적, 계층적 지지기반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견제론이 한나라당으로 이탈했던 구여권의 지지층의 결집과 재이탈을 가져오는 요인이 되는 셈이다. 이것이 한나라당에게는 위기의식을, 비관적이던 민주당에게는 재기의 희망을 제공해주고 있는 것이다.[표1],[표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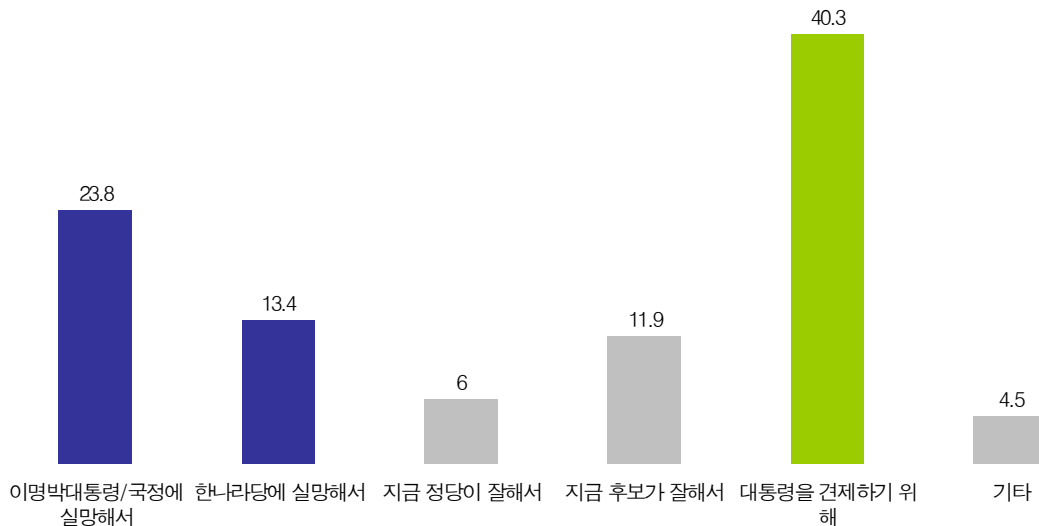


[그림1] 이명박 후보 지지층의 총선지지 변화

대선투표 12월	총선투표 3월																		
이명박지지 666명	<table border="1"> <tr> <td>한나라당 후보</td> <td>424명</td> <td>(유지율 63.7%)</td> </tr> <tr> <td>통합민주당 후보</td> <td>43명</td> <td>6.5% 이탈</td> </tr> <tr> <td>자유선진당 후보</td> <td>5명</td> <td>0.8% 이탈</td> </tr> <tr> <td>다른 후보</td> <td>19명</td> <td>3.0% 이탈</td> </tr> <tr> <td>미결정층</td> <td>175명</td> <td>26.3% 이탈</td> </tr> <tr> <td colspan="2"></td> <td>(총 36.3% 이탈)</td> </tr> </table>	한나라당 후보	424명	(유지율 63.7%)	통합민주당 후보	43명	6.5% 이탈	자유선진당 후보	5명	0.8% 이탈	다른 후보	19명	3.0% 이탈	미결정층	175명	26.3% 이탈			(총 36.3% 이탈)
한나라당 후보	424명	(유지율 63.7%)																	
통합민주당 후보	43명	6.5% 이탈																	
자유선진당 후보	5명	0.8% 이탈																	
다른 후보	19명	3.0% 이탈																	
미결정층	175명	26.3% 이탈																	
		(총 36.3% 이탈)																	
정동영지지 297명	<table border="1"> <tr> <td>한나라당 후보</td> <td>20명</td> <td>6.7% 이탈</td> </tr> <tr> <td>통합민주당 후보</td> <td>154명</td> <td>(51.9% 유지)</td> </tr> <tr> <td>자유선진당 후보</td> <td>3명</td> <td>1.0% 이탈</td> </tr> <tr> <td>다른 후보</td> <td>24명</td> <td>8.1% 이탈</td> </tr> <tr> <td>미결정층</td> <td>96명</td> <td>32.3% 이탈</td> </tr> <tr> <td colspan="2"></td> <td>(총 48.1%이탈)</td> </tr> </table>	한나라당 후보	20명	6.7% 이탈	통합민주당 후보	154명	(51.9% 유지)	자유선진당 후보	3명	1.0% 이탈	다른 후보	24명	8.1% 이탈	미결정층	96명	32.3% 이탈			(총 48.1%이탈)
한나라당 후보	20명	6.7% 이탈																	
통합민주당 후보	154명	(51.9% 유지)																	
자유선진당 후보	3명	1.0% 이탈																	
다른 후보	24명	8.1% 이탈																	
미결정층	96명	32.3% 이탈																	
		(총 48.1%이탈)																	
이회창지지 133명	<table border="1"> <tr> <td>한나라당 후보</td> <td>49명</td> <td>36.8% 이탈</td> </tr> <tr> <td>통합민주당 후보</td> <td>14명</td> <td>10.5% 이탈</td> </tr> <tr> <td>자유선진당 후보</td> <td>15명</td> <td>(11.3% 유지)</td> </tr> <tr> <td>다른 후보</td> <td>3명</td> <td>2.3% 이탈</td> </tr> <tr> <td>미결정층</td> <td>52명</td> <td>39.1% 이탈</td> </tr> <tr> <td colspan="2"></td> <td>(총 88.7% 이탈)</td> </tr> </table>	한나라당 후보	49명	36.8% 이탈	통합민주당 후보	14명	10.5% 이탈	자유선진당 후보	15명	(11.3% 유지)	다른 후보	3명	2.3% 이탈	미결정층	52명	39.1% 이탈			(총 88.7% 이탈)
한나라당 후보	49명	36.8% 이탈																	
통합민주당 후보	14명	10.5% 이탈																	
자유선진당 후보	15명	(11.3% 유지)																	
다른 후보	3명	2.3% 이탈																	
미결정층	52명	39.1% 이탈																	
		(총 88.7% 이탈)																	

주1. 총1370명 대상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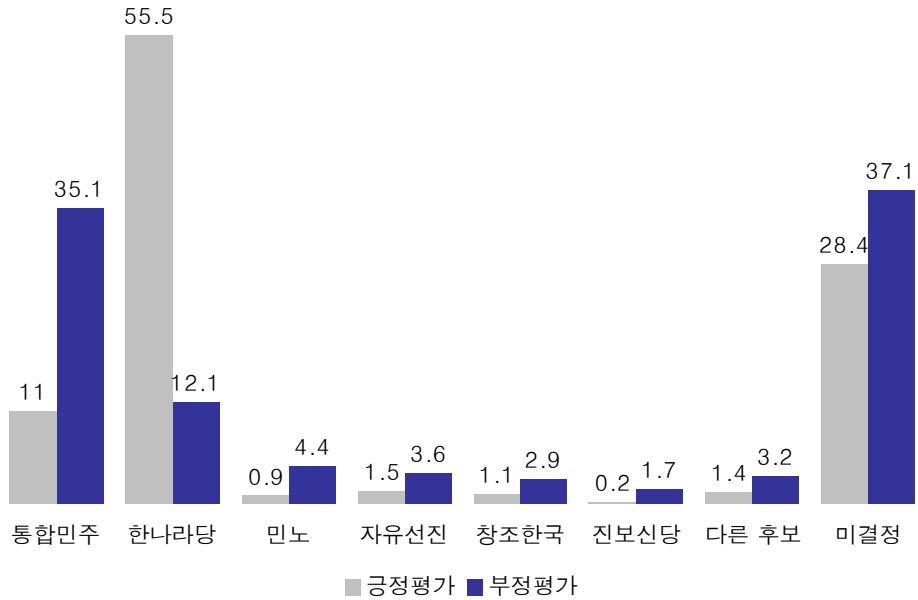
[그림2] 대선당시 이명박 지지자 중 총선에서 비한나라당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



주1. 비한나라당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밝힌 67명 대상 질문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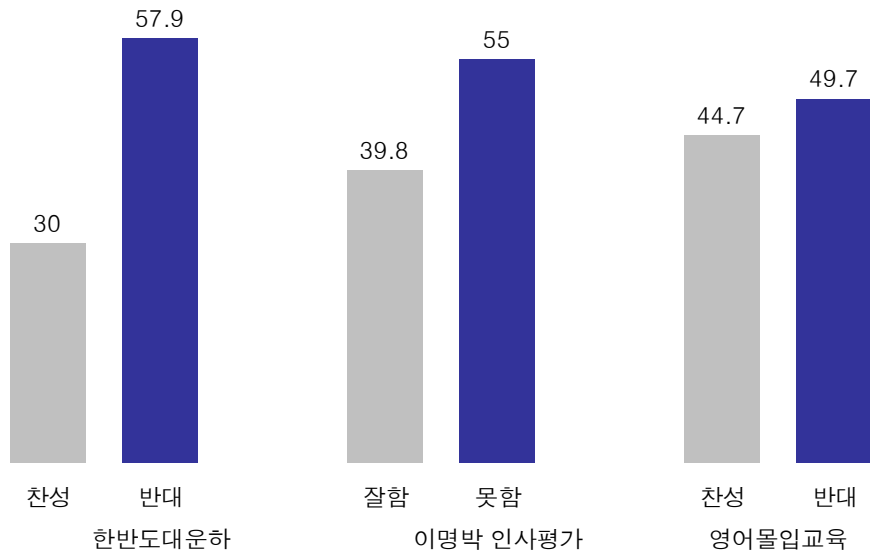


[그림3] 이명박 대통령 국정 평가별 총선지지후보(%)



주1. 긍정평가: “매우 잘할 것”+“대체로 잘할 것”, 부정평가: “매우 못하고 있다”+“대체로 못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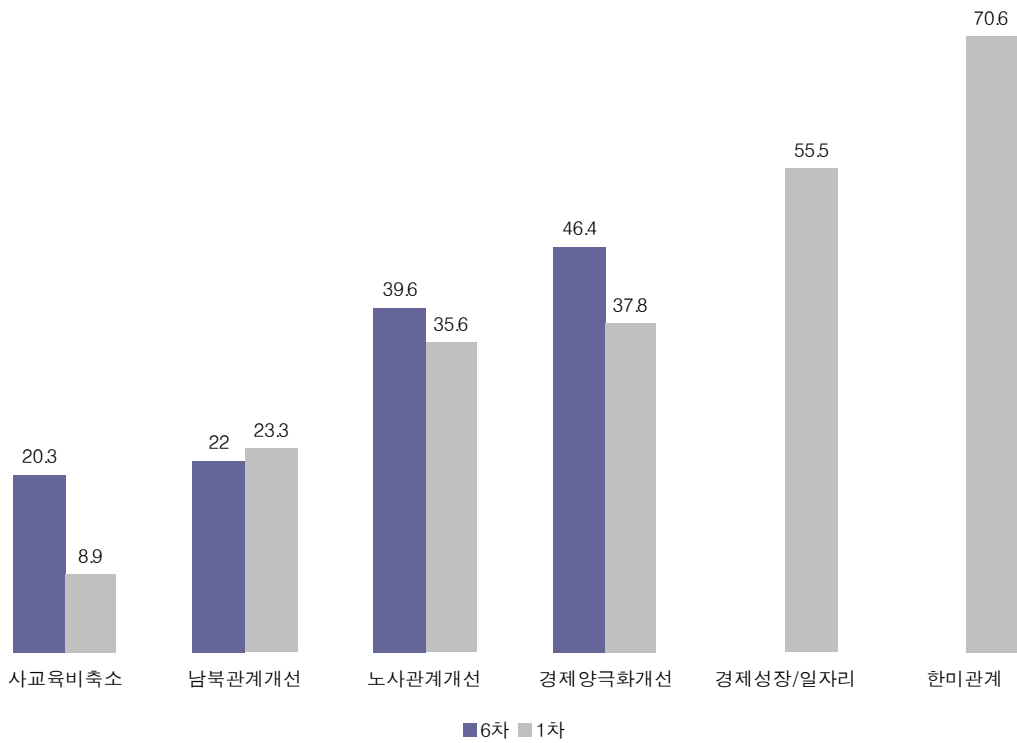
[그림4] 주요 정책에 대한 입장 및 초기 인사정책에 대한 평가(%)



주1. 각각 4점 척도로서 2개씩 묶어 응답비율 구함. 모름/무응답은 표기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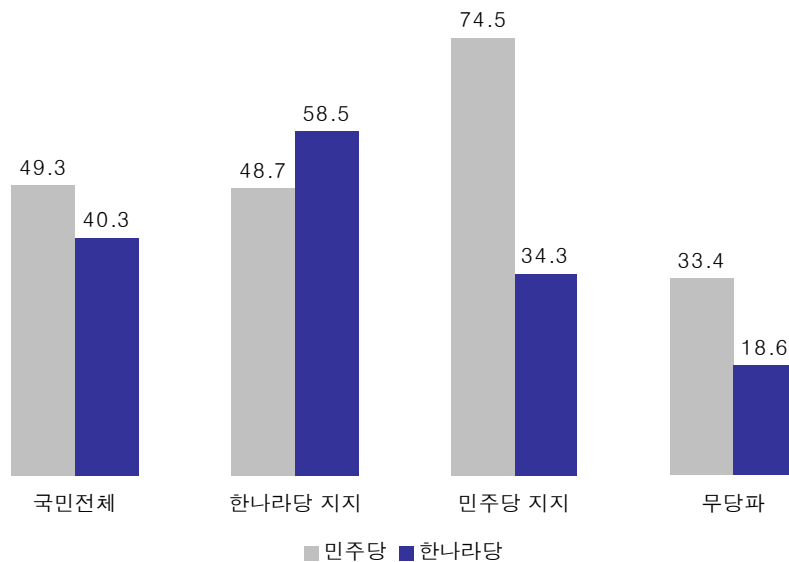


[그림5] 이명박 정부 하에서 주요 과제별 개선 전망(%)



주1. 수치는 각각의 질문에 대해 1. 개선될 것(잘 될 것) 2. 달라지지 않을 것 3. 악화될 것(나빠질 것)이라는 응답 중 개선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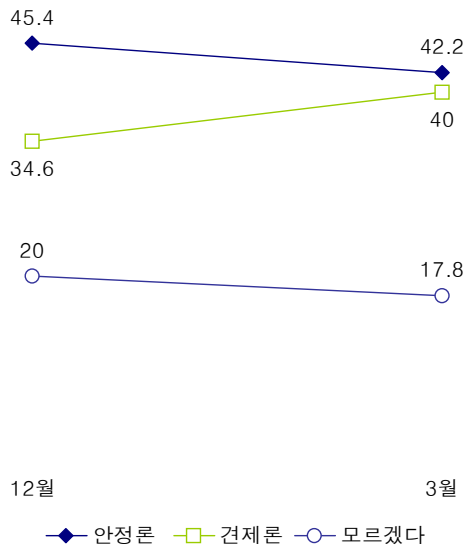
[그림6] 정당 지지별 민주당 공천 및 한나라당 공천 평가 : “만족한다”(%)



주1. 수치는 4점 척도 중 “매우 만족스럽다”+“대체로 만족스럽다”를 합한 값



[그림7] 안정론과 견제론 입장 변화(%)



[표1] 2007년 12월 6차 조사 “견제론 대 안정론”

Base=전체	사례수 (명)	안정론 국정을 안정 시켜야 한다	견제론 인영 대통령 을 말 아야 한다	국정 운영 에서 대통령 의 독 주 를 막 아 야 한다	잘 모르 겠다	계
		%	%	%	%	
■ 전 체 ■	(2111)	45.4	34.6	20.0	100.0	
○ 연 령 ○						
19 - 29 세	(457)	31.3	33.8	34.9	100.0	
30 - 39 세	(494)	35.8	41.4	22.8	100.0	
40 - 49 세	(478)	46.6	39.1	14.3	100.0	
50 - 59 세	(314)	54.1	32.3	13.6	100.0	
60 세 이상	(368)	66.9	22.7	10.4	100.0	
○ 학 령 ○						
중 고 대	(489)	51.8	31.6	16.6	100.0	
졸 이	(766)	46.8	33.4	19.8	100.0	
대 재 이	(856)	40.5	37.4	22.1	100.0	
○ 소 득 ○						
100 만 원 미만	(222)	54.9	26.8	18.3	100.0	
100-199 만 원	(320)	50.8	30.9	18.3	100.0	
200-299 만 원	(487)	41.9	37.0	21.1	100.0	
300-399 만 원	(447)	41.0	38.9	20.1	100.0	
400 만 원 이상	(581)	45.5	36.6	17.9	100.0	
모름 / 무응답	(54)	41.6	10.6	47.8	100.0	
○ 권 서 ○	(453)	47.3	34.0	18.8	100.0	
인천 / 경기	(567)	44.0	35.6	20.4	100.0	
대전 / 충청	(212)	44.0	35.8	20.1	100.0	
광주 / 전남	(224)	21.1	56.2	22.7	100.0	
대구 / 경북	(226)	61.7	23.7	14.7	100.0	
부산 / 울산 / 경남	(341)	49.1	27.4	23.4	100.0	
제주 / 강원	(89)	53.8	29.8	16.4	100.0	



[표 2] 2008년 3월 총선 “안정론 vs 견제론”

Base=전체	사례수 (명)	안정적인 정부를 운영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해할 수 있다	한나라당 과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다	잘 모르겠다	계
		%	%	%	%
■ 전 체 ■	(1370)	42.2	40.0	17.8	100.0
○ 연 령 ○					
19 - 29 세	(297)	29.7	45.6	24.7	100.0
30 - 39 세	(321)	33.9	47.6	18.5	100.0
40 - 49 세	(310)	42.8	42.7	14.5	100.0
50 - 59 세	(204)	47.5	34.6	18.0	100.0
60 세 이상	(239)	63.7	23.9	12.4	100.0
○ 학 령 ○					
초·중·고	(310)	51.2	30.5	18.4	100.0
대학	(499)	43.0	39.2	17.8	100.0
대졸 이상	(562)	36.6	45.9	17.5	100.0
○ 소 득 ○					
100만원 미만	(151)	48.2	30.7	21.1	100.0
100-199만원	(203)	48.9	33.8	17.3	100.0
200-299만원	(320)	39.5	41.0	19.5	100.0
300-399만원	(306)	41.3	44.3	14.5	100.0
400만원 이상	(360)	40.0	45.3	14.7	100.0
모름 / 무응답	(30)	33.0	10.1	56.9	100.0
○ 권 역 ○					
서울	(294)	41.5	40.4	18.1	100.0
인천	(368)	40.4	38.1	21.6	100.0
대전	(137)	39.1	44.3	16.6	100.0
광주	(145)	12.8	69.8	17.4	100.0
대구	(146)	65.8	22.6	11.6	100.0
부산/울산	(222)	49.6	33.9	16.5	100.0
제주	(58)	50.6	32.8	16.6	100.0



민심변화, 총선 표심으로 이어질 지는 예단하기 힘들어

정한울(EAI 여론분석센터 부소장)

공천과정에서의 잡음과 탈락후보들의 탈당이 계속되는 등 어수선한 정국이 계속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이 과반의석 확보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패널 조사를 통해 지난 대선에서부터 현재까지의 여론변화를 추적하면 이명박 정부에 대한 지지율 하락과 초기 국정운영에 대한 비판으로 나타나는 민심의 변화가 전국적 차원에서의 총선 표심으로 이어질 지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전국적 차원의 판세, 전국적 차원의 표심 변화는 잠잠

12월 대선직후에 실시한 조사와 이번 3월 조사에서 같은 응답자를 대상으로 물어 본 결과를 비교하면 전국적 차원에서의 지지판세는 큰 변화가 없다. 공천재미를 톡톡히 본 민주당이 민주당의 전신인 대통합민주신당에 투표하겠다는 비율이 14.2%에서 현재 18.3%로 4.1%p가량 오르고 분당한 민주노동당의 지지율이 빠지는 등의 변화를 제외하면 거의 같은 시기에 한 조사결과라고 착각할 정도다. 그렇다면 정부에 대한 실망으로 나타나는 민심의 변화가 총선표심에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그림8]

요동치는 민심, 표심변화로 이어지지 않는 핵심 이유

45~49%대의 강한 한나라당 지지층, 표심의 급격한 변화를 완화시키는 요인

안정적인 정당 지지층의 형성이 전국적인 차원에서 한나라당 총선지지율의 추가하락을 막고 있다. 한나라당은 대선패널1차 조사가 시작된 작년 4월까지 현재까지 45%~49%대로 대단히 안정적인 지지기반을 보여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특정정당에 대한 일체감(party identification)은 한번 형성되면 장기간 지속될 뿐 아니라 투표와 같은 단기간의 정치행위에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 정부에 대한 실망과 견제심리가 작동하면서 이 한나라당 정당 지지층을 총선지지로 온전히 흡수하는 데는 실패하고 있지만 강한 정당 지지기반이 여전히 총선에서 한나라당의 우위를 유지시키는 힘이 되는 것이다.[그림9]

민주당 대안론 약해, 李 국정평가 반감층의 35.1%, 견제론 유권자의 38.9%만 민주당 지지

새 정부에 대한 실망과 견제심리를 받아줄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물론 민주당의 경우 5%~14%대를 오가는 낮은 지지율에 시달렸던 민주당이 이번 조사에서 20%에 육박하는 등 상승세인 것만은 분명하다. 새 정부의 국정운영에 비판적인 유권자 중 가장 많은 응답자가 총선에서 민주당을 지지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그 비율은 35.1%에 불과하다. 이번 총선에서 대통령과 여당을 견제해야 한다는 유권자들도 과반에 한참 못 미치는 38.9%만이 민주당을 선택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국정안정론을 택한 유권자들은 87.2%가 총선에서 한나라당을 지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견제론의 확대 속에서도 민주당의 지지율이 크게 반등하지 못하는 것은 한번 놓친 지지층을 다시 되돌려 세우기가 얼마나 힘든지 보여준다.[그림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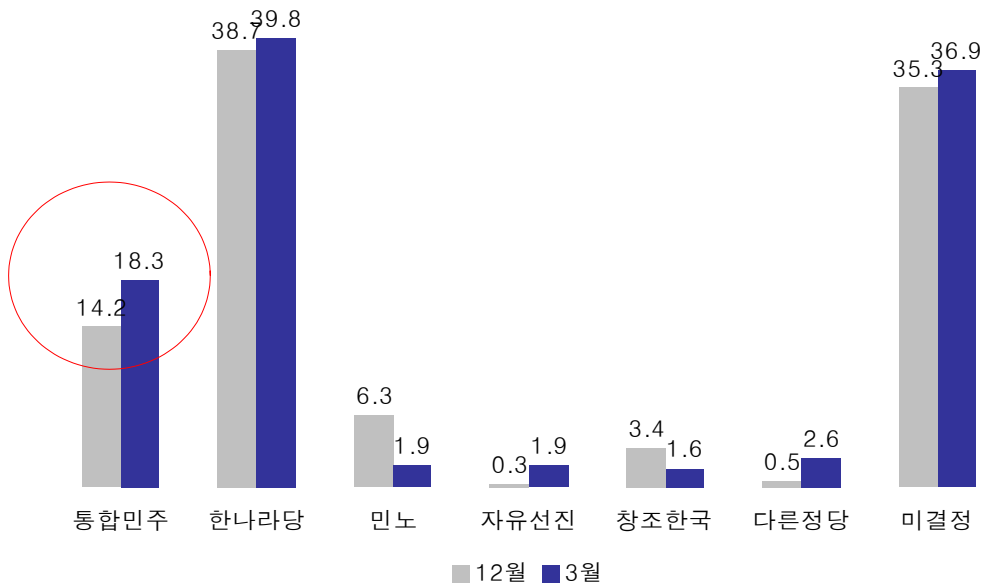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실망과 기대가 공존

이명박 정부에 대한 기대가 많이 사라진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은 과반수 이상인 60.2%가 잘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이나 한미관계 등에 대해서는 강한 기대감을 갖고 있다. 한미관계나 경제성장에 대해서는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이 각각 70.6%, 55.5%로 기대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집권초기 짧은 기간 동안에 인수위, 청와대 수석 및 장관 인선, 몇몇 국정과제에 대한 정책에 대해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남아있다는 점도 표심의 교체를 근본적으로 고려할 정도까지는 아니라 할 수 있다.[그림3],[그림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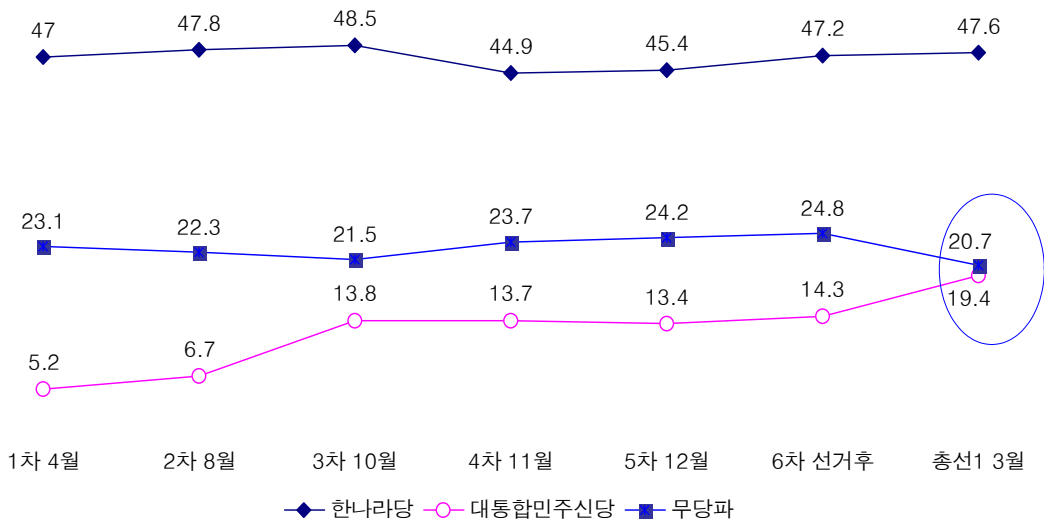


결국 새 정부에 대한 실망과 기대감이 공존하고 있고, 강한 정당지지기반과 민주당 대안론에 선뜻 동조하지 못하는 상황을 균형있게 고려해야 집권초기 새 정부에 대한 지지율 하락과 한나라당 우위의 총선 표심 사이의 온도 차이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온도차이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 아니면 변화할 수 있을지 남은 20일 간의 선거과정이 좌우할 것이다. 어느 쪽으로 힘의 무게가 실릴지 아직은 예단하기 힘든 상황이다.

[그림8] 3개월간 총선지지 후보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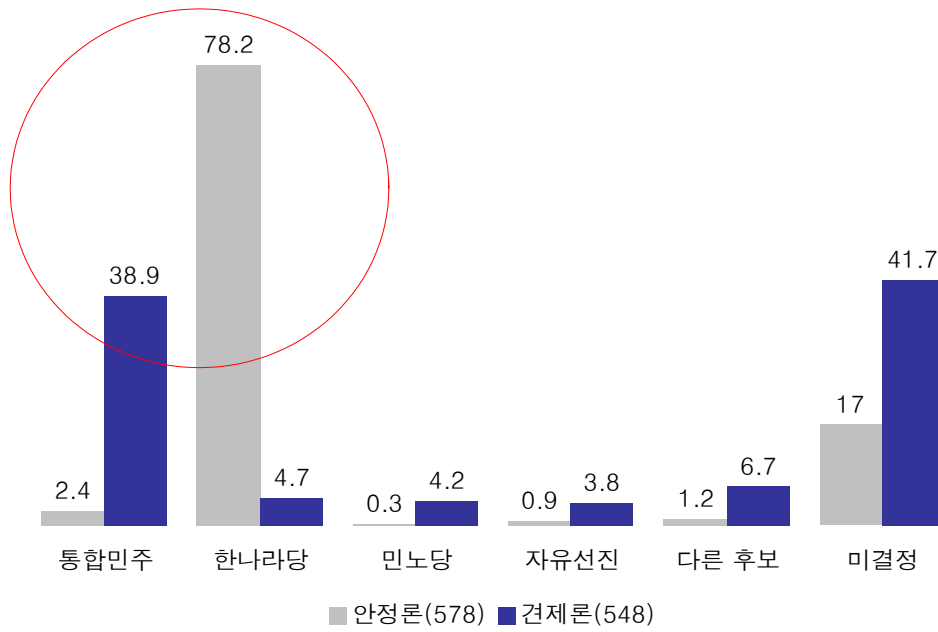
[그림9] 2007년4월~2008년 3월 정당지지율 변화(%)



주1. 기타정당 지지율은 표기하지 않음



[그림10] 안정론/견제론자의 17대 총선 지지후보(%)





총선판세 예측을 위한 3대 변수

권혁용 · 정한울

현재까지 국민들의 새정부에 대한 실망이라는 민심과 한나라당과 민주당 사이의 총선 지지율 사이에 큰 격차가 유지되는 총선 표심사이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하지만 투표일까지 남아 있는 20여일 동안 변화의 여지는 남아 있다. 그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서 총선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변수들을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

1. 총선에서의 경제변수, 양날의 검 : 경제악화의 책임, 이제 새 정부에 묻는다

지난 선거에서 경제이슈는 이명박 후보와 한나라당의 우위를 가능케 한 선거최대 쟁점 중의 하나였다. 기존 노무현 정부의 경제적 실패에 대한 문책하려는 국민들의 심리가 이명박 후보에 대한 지지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시에는 국민들이 경제가 나쁘다고 인식할수록 야당인 이명박 후보 지지율이 54%로 높고 좋아졌다고 본 사람은 지지율이 24.4%로 낮아지는 패턴이다. 대선 당시 경제이슈의 부각은 이명박 후보와 한나라당에게 호재였다.

그러나 대선이 끝나고 여야가 바뀌면서 나라 경제가 좋아진다고 보는 사람일수록 총선에서 한나라당 후보를 찍겠다(48.3%)고 답하고 경제가 악화되었다고 보면 한나라당 후보를 찍겠다는 응답이 33%로 떨어진다. 이는 현재 경제상황에 대한 책임을 노무현 정부가 아닌 현정부에게 묻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IMF 직후 경제적 책임을 김대중 정부보다는 전임 김영삼 정부에 책임을 물을 수 있었던 상황과 사뭇 다르다.

하지만 새 정부를 향한 경제적 불만이 통합민주당에 대한 지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경제가 악화되었다고 보는 유권자들 중에서 민주당을 지지하겠다는 비율은 30%대에 머물고 만다. 이는 새 정부 출범 후 비교적 초기에 치러지는 선거라 전 여당이 경제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연일 계속되는 물가불안, 환율 불안, 증시 불안 등의 경제 이슈들에 한나라당이 긴장해야 하는 상황으로 바뀌었다. 현재 국내외적으로 불어 닥치고 있는 경제 적신호들이 너무 강할 뿐 아니라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상황의 변동이 총선 투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그림11]

2. 부동층 36.9%에 주목하라.

총선에서 지지할 후보가 없거나 결정하지 못했다고 대답한 총선투표의 미결정층(undecided voter)이 36.9%의 표심이동도 총선결과를 좌우할 중대 변수이다. 즉 10명 중 네 명이 지지후보를 결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남은 선거운동 과정 여부에 따라 전체적인 판세의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아직 지지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응답층이 높은 지역이 이번 총선의 향방을 좌우할 최대 격전지임을 고려하면 미결정층의 표심을 얻기 위한 각 당의 경쟁이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지역적으로 역시 이번 선거의 대세를 가능할 수도권과 충청권의 미결정층 비율이 많다. 세대별로 보면 역시 20~40대의 젊은 세대에서 미결정층 비율이 높다. 재미있는 점은 노무현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층과 이 정부의 국정운영에 실망한 층에서 미결정층 비율이 높다는 점이다. 노무현 국정지지 긍정 평가층의 36%(부정 평가층은 29.1%)가 미결정층이라 답했고, 이 정부 부정 평가층의 34.9%-긍정 평가층의 25.9%가 아직 지지후보를 정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결국 민주당을 대안으로 여기지 못하는 구여권 지지층과 새정부에서 이탈하는 층들의 투표방향이 향후 총선 결과를 좌우할 것이다.[표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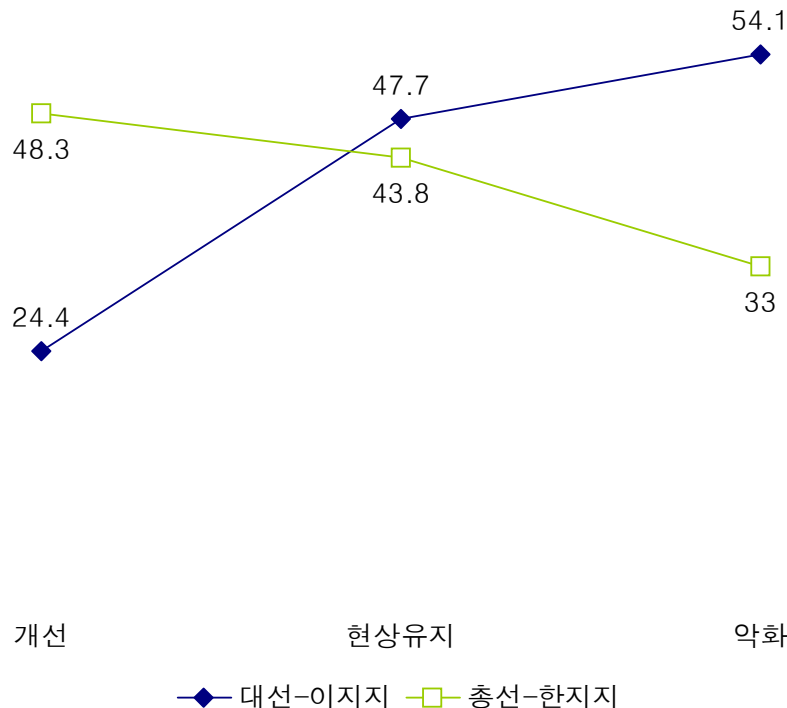
3. 적극적 투표의사층, 한나라당 후보지지 46.8%, 민주당 후보지지 19.9% 격차 더 커져

최종 선거 득표율을 예상할 때 반드시 고려할 것은 실제로 선거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투표장에 가는 사람들의 표심이다. 현재 선거관심 매우 관심이 높다고 응답한 층에서는 한나라당 후보지지 52.8%, 민주당 후보지지 21%를 기록하고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적 투표의사층에서는 한나라당 후보지지 46.8%, 민주당 후보지지 19.9%로 양당간 지지율 격차는 더 커질 전망이다. 따라서 현재 한나라당 지지기반의 약화 현상이 드러나면서도 투표의사층에서의 강한 한나라당 지지세는 유지되는 현상도 고려해야 한다.[표3]

실제의석 분포 예측 위해서는 지역구별 인물경쟁력 · 공천탈락 반발 후보 득표력 등 고려해야 할 변수 많아

이상의 요인들 역시 한나라당에 불리한 요인과 유리한 요인, 복합적 요인 등이 얽혀 있다. 특히 총선결과를 보다 정확히 예측하기 위해서는 지역구별 각 당 후보경쟁력에 대한 지역구별 평가와 지역구 차원의 별도 분석을 필요로 하게 된다. 특히 공천에서 탈락한 현역의원들이 무소속 혹은 당을 바꿔 출마할 때 이들이 얼마만큼의 의석을 차지할 수 있을지는 지켜 봐야 한다. 따라서 이들 변수 중 어떤 요인들이 부각되고, 가라 앉는가에 따라 총선 시 유권자의 선택은 상쇄하는 결과를 가져오거나 반대로 급격한 표쏠림으로 귀결될 가능성 모두를 남기고 있다. 남은 20여일 간의 양당 선거경쟁과 객관적 환경 변화에 촉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다.

[그림11] 나라경제 상황 평가별 대선 이명박 후보 지지율과 총선 한나라당 후보 지지율



주1. 대선 6차 조사와 총선 1차 조사 비교



[표 3] 지역구에서 투표할 후보의 정당

[문3] _____님께서 내일이 투표일이라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의 후보에게 투표를 하시겠습니까?

se=전체	사례수 (명)	통합민 주당후 보	한나라 당후보	민주노 당후보	자유선 진당후 보	창조합 국당후 보	진보신 당후보	다른정 당후보	무소속 후보	투표할 후보가 없다	아직결 정하지 못했다	모름/ 무응답
		%	%	%	%	%	%	%	%	%	%	
전 체	(1370)	18.3	39.8	1.9	1.9	1.6	.6	.2	1.8	2.5	31.1	.3
연령												
19 - 29 세	(297)	16.5	31.0	3.0	.5	4.6	.6	1.0	1.4	4.6	36.1	.6
30 - 39 세	(321)	19.7	33.7	3.1	2.3	.6	1.6	.0	2.5	2.1	34.0	.5
40 - 49 세	(310)	17.5	37.9	2.1	2.8	1.2	.4	.0	1.7	1.4	35.0	.0
50 - 59 세	(204)	23.3	43.9	.1	3.1	.7	.2	.0	3.4	4.6	20.6	.0
60 세 이상	(239)	15.1	58.1	.3	1.1	.5	.0	.0	.1	.0	24.8	.0
권역												
서울	(294)	19.8	36.6	1.3	1.0	.4	.7	.0	.9	.9	37.9	.6
인천 / 경기	(368)	19.3	35.9	2.1	1.2	1.7	1.1	.0	2.0	1.0	35.7	.0
대전 / 충청	(137)	12.3	36.9	1.9	8.6	3.8	.6	.0	.0	2.3	33.6	.0
광주 / 전라	(145)	52.0	12.3	.5	.0	1.8	.0	.0	3.8	5.3	24.3	.0
대구 / 경북	(146)	4.5	59.3	1.4	3.4	.9	1.2	.0	3.2	2.7	22.1	1.2
부산 / 울산 / 경남	(222)	6.2	55.3	3.9	1.1	1.7	.0	1.4	1.9	5.0	23.5	.0
제주 / 강원	(58)	14.0	48.7	2.2	.0	2.2	.0	.0	.0	3.0	29.9	.0
국정운영 지지(현)												
긍정 평가	(825)	11.0	55.5	.9	1.5	1.1	.2	.0	1.4	2.2	25.9	.3
부정 평가	(392)	35.1	12.1	4.4	3.6	2.9	1.7	.8	2.4	2.0	34.9	.2
모름 / 무응답	(153)	14.4	26.4	1.2	.0	.7	.0	.0	2.2	5.6	49.5	.0
선거 관심												
매우 관심	(343)	21.0	52.8	1.9	2.0	1.9	.3	.0	2.8	.0	17.1	.2
대체로 관심	(629)	19.8	39.1	1.9	2.7	.9	.7	.0	1.8	.1	32.7	.3
별로 관심 없음	(348)	14.5	31.0	2.3	.8	2.0	.9	.9	1.2	5.0	41.2	.2
전혀 관심 없음	(48)	5.4	22.7	.0	.0	5.4	.0	.0	.0	32.5	34.0	.0
모름 / 무응답	(2)	.0	.0	.0	.0	.0	.0	.0	.0	.0	100.0	.0
투표 의향												
반드시 투표할 것	(792)	19.9	46.8	2.0	2.7	1.6	.4	.0	1.5	.9	24.1	.2
아마 투표할 것	(401)	19.1	31.5	2.3	1.1	.8	1.1	.0	2.5	1.7	39.6	.3
아마 안 할 것	(66)	15.3	37.7	1.8	1.3	.0	1.3	.0	.0	8.1	34.4	.0
투표 안 할 것	(22)	9.9	9.0	.0	.0	.0	.0	.0	.0	61.2	19.9	.0
결정 안 함	(90)	4.3	24.4	.6	.0	5.8	.0	3.4	3.3	2.1	55.3	.9